

손명수 차관 “코로나를 계기로 철도산업의 혁신 필요” 강조

28일 간담회에서 ‘포스트 코로나, 미래 교통정책의 추진방향’ 심도 논의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28일(목)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철도 분야의 여건 변화와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점검하고, 코로나 뉴노멀 시대 교통 정책의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
 - 이번 간담회는 지난 교통연구원(4.27), 국토연구원(5.11)과 건설기술연구원·도로공사(5.19), 공항공사(5.27)와의 포스트 코로나19 간담회 이후 다섯 번째 자리로, 코로나19 이후 국토 도시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교통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2차관실 릴레이 정책간담회의 일환이다.
 -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·철도공사·철도공단·한국교통학회가 함께 모여 코로나19가 철도에 미칠 영향과 국가기반시설 디지털 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“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도 분야는 개방과 협업을 통해 발전시킬 분야가 무궁무진”하며, “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교통수단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 - 특히, “코로나19로 전통 인프라인 철도가 전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으며, 2004년 최초의 고속철도가 개통한 이후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철도 분야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적기로,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”하다고 밝혔다.
- 아울러, “오늘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정책 프로젝트를 수립·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□ 개최목적

- 코로나19 이후 철도 분야의 여건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논의

□ 행사 개요

- (時/所) '20.5.28(목) 09:30~11:30 / 철도공사 서울본부 內 회의실
- (참석자) 국토부 및 철도연, 철도공사·공단 관계자 등 46명
 - (국토부) 2차관님(주재), 철도안전정책관, 주요과장·계장 등 젊은 직원 17명
 - (철도연) 부원장, 신교통혁신연구소장, 미래교통정책본부장 등 11명
 - (철도공사) 경영기획본부장, 미래전략실장, 고객마케팅단장 등 7명
 - (철도공단) 기획본부장, 기술본부장 등 9명, (교통학회) 교수 2명

□ 세부 진행계획

구 분	내 용	비 고
1. 개회	09:30-09:35 (5") 환영사 및 참석자 소개	철도연 미래혁신전략실장
2. 모두말씀	09:35-09:40 (5") 차관님 모두말씀	제2차관님
3. 발제	09:40-09:50 (10") ①코로나19의 철도교통 파급효과 및 향후 대응방안	철도연 부원장
	09:50-09:55 (5") ①코로나 19에 따른 철도분야 영향 ②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	철도공사 전략기획처장
	09:55-10:00 (5") ①코로나19 전후 철도 환경변화 분석 ②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	철도공단 기획본부장
4. 토론	10:00-11:25 (85") 토론 및 협업 강화방안 등	참석자
5. 폐회	11:25-11:30 (5") 차관님 마무리 말씀	2차관님